

-(으)ㄴ 성싶다

~할 것 같다, ~할 듯싶다

부드럽고 예스러운 완곡 표현입니다. 것 같다와 듯하다 같은 추측 표현과 한 계열이며, 그중 문학적인 쪽에 속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앞으로의 일	-(으)ㄴ 성싶다	오다 → 올 성싶다
현재 상태	-는 성싶다	알다 → 아는 성싶다
완료	-(으)ㄴ 성싶다	떠난 성싶다
ㄴ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성싶다
띄어쓰기	성싶다는 붙여 쓰고, 앞은 띄어 씀	올 성싶다
자주 함께 쓰는 말	아무래도	아무래도 올 성싶다

■ 언제 쓰나요

가장 흔한 형태는 앞으로의 일에 쓰는 -(으)ㄴ 성싶다로, ㄴ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현재의 -는 성싶다와 완료의 -(으)ㄴ 성싶다도 쓰입니다. 성싶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쓰고, 관형형 뒤는 띄어 씁니다.

확신의 정도는 낮고 개인적입니다.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인상입니다: 아무래도 비가 올 성싶다.

모양이다와 달리 외부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,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.

문어적이고 다소 예스러운 말투입니다. 현대의 글에서는 보통 듯하다나 것 같다를 선호하며, 성싶다는 주로 소설이나 수필에서 만나게 됩니다.

■ 예문

- 1 아무래도 비가 올 성싶다.
- 2 이대로 두면 일이 커질 성싶었다.
- 3 그는 이미 사정을 아는 성싶었다.
- 4 기다려도 오지 않을 성싶어 자리를 떴다.
- 5 이 정도면 직접 만들 성싶은데요.
- 6 그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성싶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듯하다
둘 다 문어체 완곡 표현입니다. 듯하다는 현대적이고 중립적이며, 성싶다는 더 예스럽고 혼잣말처럼 개인적인 느낌을 줍니다.
비가 올 듯하다. (비가 올 것 같아 보인다) / 비가 올 성싶다. (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)

-(으)ㄴ/는 모양이다
모양이다는 외부의 근거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. 성싶다에는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없습니다.
비가 오는 모양이에요. (근거에 따른 추측) / 비가 올 성싶다. (나의 인상)

-(으)ㄴ 법하다
법하다는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평가하고, 성싶다는 무언가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전합니다. 하나는 판단하고, 다른 하나는 생각에 잠깁니다.
그럴 법해요. (충분히 그럴 수 있다) / 그럴 성싶다. (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)

■ 주의

- ✗ 이 정도면 직접 만들을 성싶은데요.
- 이 정도면 직접 만들 성싶은데요.
ㄴ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마찬가지로입니다.
- ✗ 비가 올 성 싶다.
- 비가 올 성싶다.
성싶다는 한 단어입니다. 띄어 쓰는 자리는 그 앞, 관형형 뒤입니다.
- ✗ 야, 비 올 성싶어.
- 야, 비 올 것 같아.
성싶다는 문어적이고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것 같다가 자연스럽습니다.